



# 철학자의 설득법

지성과 감성을 혼드는  
소피스트 수사학

안광복 지음

출간일 : 2012년 9월 19일

정가 : 13,000원

페이지 : 280쪽

소피스트 수사학은 이성과 감성을 뒤혼든다. 상대의 판단을 흐려서 자신이 의도한 결론으로 끌려오게끔 하기 위해서다. 반면, 나는 소피스트의 설득법을 해독하는 데 방점을 두었다. 논리를 꿰고 있는 이들이 생각을 어떻게 흐트러트리는지, 여기에 말려들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하는지를 공들여 설명했다…… 건전한 이성으로 욕망을 다스리는 사람, 따뜻한 가슴에서 애정이 피어나는 사람은 섰된 설득에 말려들지 않는다. “소크라테스처럼 따뜻한 가슴과 건전한 이성을 갖출 것.” 이 책의 결론은 이 한마디로 간추릴 수 있겠다. -에필로그 중에서

# 1. 철학을 통해 일상을 살찌우는

## 임상철학자 안광복, 철학으로 설득하다

: 교육학, 심리학, 뇌과학을 아우르는 지혜로운 소통을 위한 언어의 기술

사람들은 나쁜 일의 원인은 '내 탓'이 아닌 '남 탓'이나 '상황 탓'으로 돌리려 한다. 남에게 닥친 어려움을 그들 '자체'가 덜떨어졌기 때문으로 돌린다. 공포가 마음을 휩쓸 때도 다르지 않다. 무엇보다 지금의 어려움은 '나' 때문이 아닌 사악한 '누구' 때문이어야 한다. 독재자들은 이 마음을 정교하게 이용한다. 그들은 미운털이 박힌 집단을 희생양으로 내세운다. 히틀러는 경제가 휘청이던 이유를 '유대인'에게로 돌렸다. 일본의 권력자들은 관동 대지진 때 혼란의 원인이 '조선인' 탓이라고 헛소문을 냈다.

-9장. 설득력은 흥분을 타고 온다. 전체주의 설득술

상대방의 말이나 글에 현혹되거나, 상대방의 의사를 이성적으로 파악해야 할 때 감정에 눈이 가려 말싸움에 빠지는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이다. 내 생각과 의도를 100퍼센트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경험도 마찬가지다. 어떻게 하면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핵심을 꿰뚫어볼 수 있을까? 어떻게 효율적으로 설득할 수 있을까?

《철학 역사를 만나다》, 《열일곱 살의 인생론》 등 삶으로서의 철학, 삶의 기쁨으로서의 철학을 전해온 저자 안광복이 '철학으로 설득하는 법'을 이야기한다. 저자는 이 점을 설명하기 위해 고대 철학자들의 이름부터 읊조리고 있지 않다. 고대 철학자들에게서 익힌 기술을 시대에 맞게 재해석해 펼친다. 일상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철학자들의 방법론을 강화해줄 근거들을 오늘날의 전방위 학문들에서 찾았다.

그렇게 책은 솔직한 충고보다 아부에 흔들리는 마음, 사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몰아가 결국 지갑을 꺼내게 만드는 상술, 자신이 쓴 횡설수설한 글 앞에서의 좌절까지, 효율적인 소통을 가로막는 일상의 순간들을 짚어낸다. 그리고 키케로와 칸트 등의 철학자들의 치열한 고민은 물론, 히틀러를 비롯한 간교한 대중선동가들의 전략과 오늘날 인간 심리와 행동의 비밀을 파헤친 심리학, 뇌과학 등을 아우르며 설득 노하우를 전한다.

# 2. 고대 수사학, 오늘의 옷을 입다

: 소크라테스의 눈으로 재해석한 고대 소피스트 수사학

나는 늘 '소크라테스 같은 철학자가 되기를 원했다. 그러나 나의 일상은 소피스트에 가깝다. 세상은 철학교사인 나에게 가치 있는 삶보다 '설득력 있게 말하고 쓰는 법'을 알려주기를 원한다. .... 사실 소피스트와 소크라테스의 '기술'은 큰 차이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지향하는 목표에 있어 이 둘은 완전히 다르다. 똑같은 부엌칼이라도 요리사가 쓸 때는 요리 도구이지만 강도가 쓸 때는 흉기가 된다. 소피스트 수사학은 '철학자의 기술'이 될 수도, '출세를 위한 언어의 기술'이 될 수도 있다. 책의 제목을 '철학자의 설득법'이라고 붙였으면서도 부제에는 '소피스트 수사학'을 넣은 이유다. -프롤로그 중에서

이 책은 소크라테스 대화법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철학자로서, 현직 고등학교 철학교사로서, 다년간 연구와 강연을 해오며 저자가 말과 글에 애를 먹는 이들에게 빼먹지 않고 알려준 원 포인트 레슨들을 담았다.

이 레슨들의 출발은 소피스트 수사학에서부터이다. 저자는 소피스트 수사학은 양날의 칼과 같다고 지적한다. 소피스트는 인간의 약점을 건드리는 위협과 유혹을 통해 이성과 감성을 뒤흔들었지만, 이 점을 간파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응대한 소크라테스는 그들의 꾀변을 무너뜨렸다는 것. 다시 말해 소피스트 수사학은 상대를 혼드는 술수를 낳기도 하지만, 진리를 좇고 생산적 토론을 가능케 할 수도 있다.

저자는 후자를 위해 이 책을 썼다. 오늘날 수많은 설득술과 논쟁술의 근간이 되는 소피스트 수사학을 소크라테스의 눈으로 재구성한 것이다.

### 3. 철학으로 강해지는 읽고 듣고 말하고 쓰기

: 위협과 유혹은 간파하고 '내 생각'은 제대로 전달하는 방법

“철거 위기에 놓인 '럭셔리 팰리스' 주민 30여 명의 절박한 처지를 묵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보자. '럭셔리 팰리스'라는 단어는 고급 주택을 떠올리게 한다. 그런데 실상은 다 쓰러져가는 허름한 공동 주택이라면 어떨까? 아마도 절절한 호소는 '럭셔리 팰리스'라는 낱말의 뉘앙스에 눌려서 제대로 전달되지 못할 것이다. 같은 직종이라고 해도 '안전요원'이라고 부를 때와 '시급제 아르바이트생'이라고 부를 때의 느낌은 하늘과 땅 차이다. 주장을 펼칠 때는 쓰인 낱말들이 나의 의도와 맞는지 꼭 점검해야 한다.

-37장. 정교한 수사로 논리에 느낌표를 찍어라. 어휘 고르기

제대로 듣지 못하면 제대로 말할 수도 없고, 읽기도 버겁다면 쓰기 또한 버겁다. 때문에 저자는 읽고, 듣고, 말하고, 쓰기 네 차원에서 철학자가 어떻게 설득력을 높이는지를 보여준다.

#### Reading-세상을 읽는 뷰파인더를 바꾸다

내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이 정말 사실일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을까? 세상의 속임수에 휘둘리지 않고 나의 논리를 세우는 법이 담겼다.

#### Listening-감정을 다독이고 핵심을 파악하는 듣기의 기술

듣지 않으면 설득도 없다. 상대방의 방어 본능을 잠재우고 감정 소모를 넘어 대화를 발전적으로 이끄는 첫 번째 단계를 이야기한다.

#### Speaking-결론을 만드는 대화의 기술

설득은 전쟁과 다르다. 상대방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게 아니라 모두에게 발전적인 결론을 만들어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거둬드는 논쟁을 끝내고 윈-윈할 수 있을지를 보여준다.

#### Writing-설득력을 키우는 12가지 글쓰기 비법

심사숙고한 입장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면? 내 생각과 의견을 100퍼센트 제대로 전달하고 효율적으로

소통하기 위한 글쓰기 비법을 담았다.

삶의 이치를 살피는 철학 본래의 기능을 상기한다면, 이 책에서 상대방의 말문을 막거나 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단순한 기교를 기대하지는 않을 것이다. 생각을 바로 세우고, 사람들과 진정으로 소통하고, 변명과 억지 없이 내 생각을 똑바로 전할 수 있는 정공법이 담겼다. 그렇기에 책은 계속 묻는다. 나는 과연 사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가?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했다면 어떨까? 지금 화를 내는 상대방이 진짜 하고픈 말을 무엇일까? 등등. 우리를 깊은 사유로 이끌어 스스로 현명한 답을 찾게 만드는 설득술의 등장이다.